

2021년 2월 14일[제 41권 7호]

TWOWINGS 1500 VISION

#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Healthy church soaring with two wings

담임목사 **강 승 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56

전 화 | 032-345-8031~2

팩 스 | 032-345-8033

홈페이지 | [www.ylch.org](http://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오전 9: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9장	예배로의 부름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노피어 찬양단 찬양 주님 큰 영광
고백과 헌신	교육문 7. 시편 13편 신앙고백 찬송 438장 기도 김성국 집사	기도 강애진 집사 성도의 교제	기도 한상의 집사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사사기 16장 1~9절 (구약 388) <b>위대한 승리! 그 후 20년</b>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540장 축도 담임목사	봉헌 날 향한 계획 축도 담임목사	봉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축도 담임목사

공동체 예배 15:00	2월 예배위원	
마 5:14~16 <b>제직과 생활(1)</b> 설교 담임목사	[다음주 기도] 젊은예배 전선숙 권사 축제예배 정오영 집사 젊은예배 이광수 간사	[봉헌] 전통예배 김현숙 이선희 축제예배 김영일 라종선 강애진 김영미 김영숙 젊은예배 김민지 옥임석
수요기도회 19:30	3월 봉헌위원	
<b>가정 예배</b>	[전통예배] 김해숙 정현숙	[축제예배] 김성국 임경진 서덕이 나승미 정기숙



오늘의 말씀

## 위대한 승리! 그 후 20년

[사사기 16장 1~9절]

첫째, 위대한 승리 이후에 ( )을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약점은 ( )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 삼손의 몰락

[사사기 16:15~27]

### W

WELCOME

환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 W

WORSHIP

경배

.....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 W

WORD

말씀

.....

1. 어렸을 때 가장 인상적으로 본 슈퍼히어로는 누구입니까?

2.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입니까?

# Q

## QUESTIONS

### 질문

1. 들릴라가 삼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15절) 삼손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입니까?(16~17절) 결국 어떻게 됩니까?(19~20절)
2.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21절) 삼손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입니까?(22절) 조롱거리가 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28절)
3. 삼손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그의 성욕 때문이다.
  - 이방인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비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이다.
  - 들릴라의 배신 때문이다.
  -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기타:
4. 말씀에서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정해보고 서로 나눈 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 W

## WITNESS

### 증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W

## WORK & PRAYER

### 기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간증나눔

##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삶 (1)

- 청년B-4목장 박진경 자매 -

안녕하세요. B-4목장 박진경 청년입니다.

양육반부터 시작해 제자학교 세계비전 제자대학까지 어느덧 훈련을 받으며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훈련을 받을 때 마다 마음에 새긴 것은 아무나 올 수 없는 훈련의 자리임을 알기에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선순위의 삶을 지키는 것 이였습니다. 순종함으로 시작해 위대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와 졸업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훈련을 받기 전 저는 세상과 하나님을 두 마음에 품은 채 어느 방향이 맞는 것인지 알지 못해 방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충돌 할 때마다 어느 선택이 맞는 것인지 어느 길이 맞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갔고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치열한 삶에 지쳐가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을 먼저 두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던

심령은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관에 점점 물들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가득했고 세상에 그 무엇도 저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 있을 때 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저에게 다시 오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며 행복모임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자연스레 훈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회복캠프를 통해 마음의 쓴 뿌리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주인 되었던 삶들을 처절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양육반을 통해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굳게 확신하게 하시고 양육훈련을 철저히 받아 영적 성장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와 함께 아웃리치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웃리치를 통해서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현장에서 모두가 연합하여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해보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일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다음에는 더 준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다짐하며 돌아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저는 제자학교를 통해 더 이상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중심 이었던 삶을 바꾸고 변화 시켜야 되는 것을 한 번에 바꾸기란 제 마음과 몸과 생각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려 할 때마다 훈련에 자리에서 계속 보고 듣고 기도하며 수레바퀴의 삶을 유지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학교를 통해 행복모임 인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행복모임을 계속 참여하였고 인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모임을 인도하는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행복모임을 인도할 수 있을지 앞 선 걱정들도 많았지만 행복모임을 준비하고 인도 할 때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행복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더 회복되며 복음을 선포 할 때마다 복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뿐만

아니라 행복모임을 인도하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 중 가장 큰 변화는 행복모임이 훈련과 함께 시작 할 때면 무너졌던 삶의 균형들과 우선순위가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것 이였습니다. 아직은 저의 모든 삶의 부분에 연약한 부분들은 많지만 전에는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하는 것인지 막연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습들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다음주에 계속 -



목회칼럼

##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또 흠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고후 11:24~27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태장으로 세 번, 돌로 한 번, 파선은 세 번 등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삶이 지겹다거나 주님이 너무 하신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배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배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도들은 자기의 배가 하나님입니다. 배부르기 위해, 육신의 만족을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성령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배가 채워져야 은혜라고 합니다.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빌 3:19)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가 채워지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향락을 위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기우러져 있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욕구와 배를 채우고 향락에 치우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교황이 일본을 방문해서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대학생 한 명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진국으로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배만 부르면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또 다른 양식, 영적 양식을 먹어야 산다.” 배가 하나님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결코 영광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불신자였을 때 범죄하는 것을 장쾌하게 여겼습니다. 큰 죄일수록 자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사람이 되고 보니 이것이 제일 부끄러웠습니다. 가슴에 와서 닿는 고백입니



다.

여러해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동네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목욕을 합니다. 온 몸에 문신을 했는데 아무도 신경쓰지도 않고 누가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일본의 조폭인 야쿠자의 여자라고 합니다. 범죄가 결코 영광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새벽마다 회개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없신 여간다면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국법과 질서를 어긴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바로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수치스러움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전도 못한 것, 십일조 온전히 못한 것, 약자를 돕지 못한 것,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신앙생활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 즉 뜻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 전주와 충돌하면 안되기에 안경을 쓰

고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 인간간의 정신과 마음, 뜻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삽니다. 육의 모습, 육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 같은데 정신, 마음, 삶의 가치는 땅에 것에 두고 삽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10달러 짜리 돈을 주웠습니다. 그 때부터 땅 만 보고 다녔습니다. 평생 땅에서 주은 것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 54,174개, 동전 수 천 개를 주웠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푸른 하늘 자연의 조화,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땅만 보면 하나님께 있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도 보이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흘린 바울의 눈물은 이런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 금주 도기도

###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 2. 교회 사역을 위해서

- 봉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기도로 무장하여 봉사역을 준비하게 하소서.
-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온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게 하소서.

#### 3. 선교사를 위해서

-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러시아로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어진 사역들 순조롭게 잘 감당케 하소서.

### 성도를 위한 기도

#### 1. 김은숙 간사

- 목장식구들이 회복캠프에 참석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사랑으로, 비전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 새봄사역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 2. 박현숙 권사

- 목장에 새가족들(박숙이, 박혜숙, 김은희)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목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 금주의 감사

-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윤이의 폐동맥 협착으로 인한 심장잡음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더 건강하게 자라갈 소망합니다.

-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울무가 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겸손과 성실함으로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사랑하는 자녀에게 새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언니들이 한가족 환영식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회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판 사업을 잘 정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 교회 소식

### 이번주 소식

1. 오늘 공동체 예배(3시)는 제직 및 임직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제직 및 임직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육과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2월 다음주일까지(2/21)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양육반, 제자학교 - 임영미 팀장 / 세계비전제자대학1, 2학기 - 나승미 팀장  
양육반 - 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학교 - 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대학1학기 - 목요일 오후 8시  
제자대학2학기 - 화요일 오후 8시
3. 리더캠프가 2월 27일(토)에 회복캠프가 3월 6일(토)에 진행됩니다. 미리 날짜를 확인하여 훈련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4. 2021년 새봄사역을 위해 목장에서는 미리 기도하며 행복모임 구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봄 행복모임 구호를 공모합니다. 이번주 토요일(2/20)까지 공모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및 제출 : 김미정 팀장)
6. 3, 4월 셀라이프를 주문 받습니다. 다음주일까지 목자 또는 훈련국(담당 : 나승미 팀장)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5,000원 / 연간구독 30,000원)
7. 두날개 전도집중훈련이 3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온라인 실황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1차등록은 3월 4일(15만원)까지, 2차등록은 당일(17만원)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신청 및 문의 : 나승미 국장)
8. 2021 두날개 북방 아웃리치가 5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진행이 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참가는 2월 26일까지, 온라인 참가는 3월 27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유한나 팀장)

### 다음주 봉사

[청소]

본당 : 여성C-3목장(강애진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2목장(나승미 목자)

2층 : 여성B-2목장(박헌숙 목자)

3층 : 여성A-1목장(서덕이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 새가족 섬김이

이에스더 자매 (섬김이 : 박진경 자매)

승철영 성도 (섬김이 : 박원찬 집사)

김영옥 성도 (섬김이 : 김향화 성도)

김학병 성도 (섬김이 : 김영일 집사)

##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모든 것을 불태우는 교회입니다.

### 예배시간

전통예배	주일 오전 9:00
축제예배	주일 오전 11:00
젊은예배	주일 오후 1:30
공동체예배	주일 오후 3:0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30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유초등부	주일 오전 9:00
청소년부	주일 오전 9:00
작은날개모임	목장별 정한 시간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로	이성근 이승길
전도사	장효진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 온라인에서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http://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http://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Church

KT올레TV CH 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 (예일교회)



**마을버스**  
51번, 51-2번(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역곡역 남부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괴안동입구, 성심고가 하차)